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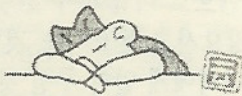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 4주일(성소 주일)
제28권 20호 (가해) 2008.4.13

[묵상]

첫 문장을 보면 어떤 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 소절을 들으면 어떤 노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가선 눈빛만으로
당신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상렐 하상 바오로 · 만화가

선교 성소를 위한 기도

온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오늘도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어
당신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도우소서.
주 성자 친히 사람이 되시어
모든 민족들의 구원을 목말라 하셨음같이
저희 모두가 인류의 구원을 갈망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과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게 하소서.
또한 온 세상 어디서나 이 시대의 요청에 응하는
많은 성소가 자라나게 하시며
특히 선교성소를 많게 하시어
온 세상에 하느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선교사들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미사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성시간(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트레아(4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김중돈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생) 민영준 마르코, 고천용과 규재 체칠리아 가정 방제인 이다마리아, 방영화 요세피나, 방세혁 분도 정혜정 켄마, 원장희 세레자요한
주 일 낮 미사	(연) 김중돈 스테파노, 이영자 마리아, 이현호 요한, 이준주 이필연, 김형태, 안준환 미카엘, 한삼만 요셉, 조오예 데레사 고준희 제임스
	(생) 이종민 요셉, 고천용과 규재 체칠리아 가정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안성진 자수아, 정열모 미카엘 김호인 벨라멧다, 배진영 가정, 오보나, 김남세 이석제 베드로 가정, 박진수 스테파노 가정, 홍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of the Apostles) 2.14-36-41

화답송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전례성가 71, 부활 제4주일 A해 참조>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누여 주시고,
 고이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시름은 가시어서 든든하되다.
 제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향기름 이 머리에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되다.◎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한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리니
 오래오래 주님 궁에서 사오리다.◎

제 2독서 베드로 1서(1 Peter) 2.20-25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 음 요한(John) 10.1-10
 영성체송 주님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시고, 주님의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신, 착하신 목자께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아나뵘 열린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왕이신 하느님	164
봉헌	나를 받으옵소서, Give Thanks	243, 259
성체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283, 298
파견	그 사랑 야훼께 감사하여라	167

11.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그 법칙을 '믿는다' 하지 않고 '안다'고 하였다. 우리도 그 법칙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안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위대한 성인들은 하느님과 그분께서 알려 주신 것을 믿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 오늘날 믿음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실제의 경험, 곧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전부라는 사고방식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는 것에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막연하고 무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믿음을 가능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요한 16.12-15)

▶ 삼위일체 신비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과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였다. 그렇다고 우리는 세 분의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 주셨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분 하느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이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신비이다.

제시된 삼위일체 신비는 초기 교회 때부터 신앙의 근원이었다. 곧 교회는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왔고 설교나 교리교육, 교회의 기도 안에 삼위일체 신앙을 담아 왔다. 교회가 삼위일체 신비를 교리로 확정한 것은 삼위일체 신앙을 왜곡하려는 교회 안팎의 도전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회는 '실체', '위격' 등 다소 어려운 철학적 개념을 사용하여 삼위일체 신비를 교리로 확정하였다. 교회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앙은 다음과 같다. “하느님께서서는 세 분이 아니라 세 위격이신 한 분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세 위격은 서로 실체적으로 구분되지만 오직 하나의 본성, 하나의 실체이시다. 성부의 위격이 다르고 성자의 위격이 다르고 성령의 위격이 다르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천주성은 하나이고, 그 영광은 동일하고, 그 위엄은 다 같이 영원하다.”

◆(계속 / CBCK 제공)

감사합니다. 주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일은 일상적인 삶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일상적인 삶의 요소들을 가르침을 위한 소재로 삼으십니다. 물론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착한 목자에 관한 가르침은 요한 복음서 안에서는 유일하게 비유의 형태를 띤 것으로써 다양하고도 풍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세우실 교회들, 양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 놓은 목장으로 소개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당신 자신을 양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소개하십니다. 그러므로 목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양들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양들도 그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양들의 합법적인 목자이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합법적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 하나하나를 각자의 이름을 불러 부른 풀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분으로서 양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피로서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인간이 무엇인가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인가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시편 8:5)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착한 목자이신 그분의 양 우리 안에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행복과 기쁨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살피 주시는 착한 목자이신 주님을 향

해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치며 그에 걸맞게 살려는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고갯길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희가 가는 길에서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 가게 해 주십시오.

넓은 길, 평탄한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도록 더욱 깊은 믿음을 주십시오.

넓고 푸른 또 다른 인생의 초원이

주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의 양 우리가 행복의 보금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착한 목자이신 주님, 보살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조건 없이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당신으로 인해 행복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어디서 행복을 찾을 것입니까? 우리를 지켜 주기 위해 마련해 주신 양 우리를 떠나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오만과 교만을 아직도 마음 안에 남겨 두시겠습니까?

◆안병철 베드로 신부<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열린미사 (토요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신덕례 테레사	최숙 클라라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정미영 미카엘라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최종민 토마스	최영신 프란치스코	최귀환 펠릭스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유철희 바오로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권순길 세실리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유현자 안나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도린스 서 2/3반	제물봉헌자			도린스 남 2/4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박상대 마르코 본당 신부님 영명일을 축하합니다. ✽

4월25일(금) 마르코 복음사가의 축일을 맞는 본당 신부님께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합니다. 축하식은 4월20일(주일) 11시
미사 중에 있습니다.

◆ 양업회 춘계 축구시합

- 오늘 주일(13일) 미사후 오후 1시
- 각 단체의 많은 참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홈리스 피플 봉사

- 오늘 주일(13일) 오후 4시, 롱비치 무숙자 셀터
- 이발봉사와 음식봉사 ☎283-5879 박홍룡 오쎬

◆ 요셉회/안나회 부활맞이 온천관광

- 일시 : 4월15일(화)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출발
- 장소 :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55명 정원이 다 찼습니다.)

◆ 가톨릭방송 기금마련 폐전자제품 수거

- 백삼위 본당 수거일 : 4월27일(주일)
- 장소 : 리사이클링 통 옆(본당 남서쪽 코너)
- 수거 가능 품목 : 휴대폰, 컴퓨터(모니터 포함 관련품목)
전화기, 전선줄, TV, 프린터, 복사기, 선풍기, 에어컨.
- 불가능품목 : 냉장고, 오븐,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전동
- 의문나는 제품 문의 : ☎ 909-418-0306

◆ 본당 수녀님 북미주 한인 수도자 피정 참석

- 일정 : 4월14일(월)~24일(목), 말리부 새라 피정의 집
- 수녀님의 건강과 은혜로운 피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제 61차 M.E. 첫 주말 참가 신청자 모집

- 일시 : 5월2일(금)~4일(주일)
- 장소 : 마리아&요셉 수도원(P.V. 소재)
- ☎ 922-1502 오영섭 스테파노 ♥지희 요안나 본당 대표부부

◆ 혼인개신식 신청

부부가 상호 존경과 사랑을 하느님께 다시금 서약하기 위한
혼인개신식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5월11일(주일) 오전 11시 미사 중
- 대상 : 전 신자(외박교우 포함)
- 신청 : 4월27일(주일)까지 사무실

*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 고등부 견진성사

- 일 시 : 5월2일(금) 오후 7시, 성 마가렛 매리 성당
- 준비모임 : 4월25일(금) 오후 7시30분, 성 마가렛 매리
- 대 상 : 세례받은 10학년~12학년
- 신청서류 : 견진성사 신청서(사무실), 세례증명서제출
- 신청마감 : 4월20일(주일)까지

◆ 첫영성체 신청

- 첫영성체 : 6월15일(주일) 11시 미사 중
- 대 상 : 초등부 2학년 전체,
3~12학년 중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어린이
(세례를 받지않은 어린이 포함)
- 접수기간 : 4월13일(주일)~27일(주일)
- 교리일정 : 5월4일(주일)~6월14일(토)

◆ 고등부 신앙대회(Steubenville, San Diego)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 주제 : "Witness"
- 참가비 : \$170, 신청마감 : 5월4일(주일), 35명 선착순
☎702-4273 김병수 베드로 교장

◆ 한국학교 오늘 주일(13일) 수업 없습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4월13일(주일) : P.V. 3반 (불고기덮밥+오이냉국 \$3)
- 4월20일(주일) : 토런스 남 2/3반 (잔치국수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진열	금영도	김기정	김선영	김선제	김선희	김영경
	김옥보	김 옥	김원모	김정희	김종환	김형순	남명자
	노천수	모은기	문충환	민기남	민봉식	박상준	박준구
	방정복	배기엽	배진영	성낙호	신경훈	신대철	엄영희
	오명섭	오진자	오태환	유영균	유우상	유인섭	유정복
	육재민	이관웅	이귀분	이근모	이근태	이명자	이민상
	이석제	이영희	이은록	이인석	이일형	이정희	익 명
	장수창	장숙환	장영우	장영진	정훈모	조경림	주대중
	지경수	최미열	최수복	최의수	최진수	최현찬	황인종
	황철수	황학수	크리스리	김아가비도	영희가보라		
합계 : \$5,815							
미사헌금 : \$2,758.58							

성전헌금	권진열	금영도	김기정	김선영	김선제	김선희	김옥보
	김 옥	김원모	김정희	김종환	김형순	남명자	노천수
	모은기	문충환	민기남	민봉식	박상준	박준구	배기엽
	배진영	신경훈	오진자	오태환	유영균	유우상	유인섭
	유정복	육재민	이귀분	이근모	이근태	이명자	이민상
	이석제	이영희	이은록	이인석	이일형	이정희	익 명
	장수창	장숙환	장영우	장영진	정훈모	조경림	주대중
	지경수	최미열	최의수	최진수	최현찬	황인종	
	김아가비도	영희가보라					
합계 : \$3,938							
리사이클링 : \$188							

이 주간의 축일(4월13일~19일)

◎ 축하합니다. ◎

- 13일 : 마르티노 1세 교황 순교자, 헤르메네질드 왕 순교자, 우르소 주교, 아가토니카 순교자
- 14일 : 티부르시오 순교자, 발레리아노 순교자, 막시모 순교자, 람베르토주교, 리드비나 동정녀, 돔니나 순교자
- 15일 : 마로 순교자, 바실리아 순교자, 훈나 수절
- 16일 : 투리비오 주교, 파테르노 주교, 베네딕토 요셉 증거자, 벨라델타 동정녀, 엔크라시아 동정 순교자
- 17일 : 아니체토 교황 순교자, 스테파노 하르딩 원장, 로벨토 원장, 인노첸시오 주교
- 18일 : 아폴로니오 순교자, 갈디노 추기경, 엘레우테리오 주교 순교자, 안티아 순교자, 아지아 수절
- 19일 : 레오 9세 교황, 소크라테스 순교자, 티몬 부제 순교자

남가주 소식

◆ 성 토마스 성당 청년회 찬양의 밤(Let God Arise)

- 4월18일(금) 오후 7시30분
- 부활의 기쁨을 함께하는 청년회 밴드의 열린 찬양의 시간

◆ 유빌라테 가톨릭 성가 동호회 주최 '뮤직 캠프'

- 성음악에 관심있는 교우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시 : 4월19일(토) 오전 9시~오후 9시
 - 강사 : 윤용선 바울로 신부(천주교 부산교구 성음악 감독)
 - 장소 : 백삼위 한인성당 ● 참가비 : \$40(중/석식 제공)
 - 신청 문의 : 민원희 안나 ☎ 310-634-9631

◆ 남가주 꾸리아 협의회 21차 정기모임

- 4월20일(주일) 오후 4시, LA 성 바실회관 1층 회의실
- * 문의 : 김환일 베르나르도 회장 ☎ 213-273-6728

◆ 제 5차 신약성경 통독 피정

- 일시 : 4월25일(금) 2:30 pm~27일(주일) 5:00 pm
- 대상 : 일반인 ● 피정비 : \$100
- 장소 : 테미쿨라 꽃동네 피정의 집 ☎ 951-302-3400
- 준비물 : 성경, 성가책, 세면도구, 침낭, 편안한 신발

◆ 제11회 김수환 추기경배 골프대회

- 4월29일(화) 오전 11시 등록, 티오프 낮 12시(샷건)
- Westridge 골프코스(1400 S. La Habra Hills Dr.)
- 회비 : \$120(미주 가톨릭 방송 기금 모금)
- 주관 : 남가주평신도협의회 ☎ 213-272-7453 김춘식 회장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해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반	반장	장소/날짜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필드 트립 518-3041 4/19(토) 오전10시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유선식 필립보 326-2184 4/12(토) 오후 7시, 강당
	3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4/11(금) 오후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풍길 바오로 328-4780 4/12(토) 오후 7시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장정진 배로니카 328-4070 4/14(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배난군 세레나 325-7733 4/18(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임진희 한나 720-7898	김씨니 클라라 326-9953 4/23(수) 오전 10시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4/11(금) 오후 7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권진열 피데스 516-7472 4/11(금) 오후 7시, 성당
	3	천광락 야고보 408-3175	천광락 야고보 408-3175
하버 카슨 박해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서창호 바오로 257-1784 4/12(토) 오후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유성혜 도미니카 562-209-4454	유근우 알렉시오 541-4305 4/18(금) 오후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4/11(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이문중 바오로 541-7860 4/11(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윤클라라 377-2806 4/8(화) 오전 10시30분, 성당

선교(宣敎)인 교회에 봉사하는 성소(聖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08년 4월 13일, 오늘 성소주일의 주제는 '선교인 교회에 봉사하는 성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약속하시며,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마태 28,19)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 전체가, 또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선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초기에 갈릴래아에서 선포하시던 중, 우선 열두 제자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하셨습니다. 열두 제자는 바로 주님께 파견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세상의 길들을 따라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바로 사도는 "우리는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1코린 1,23)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사도 15,26) 사람들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친히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어 당신 곁에 있게 하시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들을 파견하신다."고 말합니다.(마르 3,13-15 참조 / 교회의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 「만민에게」, 23항)

자신을 온전히 바쳐 복음에 봉사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특별히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집전하도록 부름 받은 사제들이 있습니다. 사제들은 가장 작은 이들, 병든 이들, 고통 받는 이들, 가난한 이들, 그리고 때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지 못하는 지역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에 몸 바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온 힘을 쏟으며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빵을 쪼갬으로써 공동체 건설을 위하여 충실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교구 소속 선교(fidei donum) 사제들에게"(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 26항) 특별히 감사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활동에 이끌려 정결과 가난과 순명을 서원함으로써 철저하게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선택한 수많은 남녀 수도자들이 "세계 복음화에서 커다란 역할"(선교 교령, 40항)을 하고 있습니다. 관상 생활 수도자들은 지속적인 공동 기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며, 활동 생활 수도자들은 다양한 사랑의 활동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하느님 사랑과 자비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기꺼이 자유롭게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 69항)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계속 수행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모두 지속적인 신앙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잘 가꾸어진 영적 토양 위에서만 직무 사제직과 봉헌 생활을 위한 성소가 꽃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성령께 성소의 선물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성소를 위하여 믿음과 헌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격려합니다. 또한 교육자와 교리교사들, 그리고 특히 성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젊은이들을 비롯한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사도로서 특별한 축복을 보냅니다.

◆2008년 4월 13일 (부활 제4주일) 베네딕토 16세